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 분석

장서영* · 이로미** · 장인자***

초 록

흔히 동질집단으로 여겨지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상이한 특성을 지닌 다양한 집단의 집합체이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구직자로서 갖는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구직자 유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구직경험 또는 노동경험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 4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향시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본국에서의 경제적 수준과 같은 개인배경,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수준·결혼 유형과 같은 결혼배경, 언어자원·본국에서의 경력과 같은 인적자원, 취업 의지·희망하는 일·구직 이유와 같은 취업욕구 요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을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1) 일추구형, 2) 본국가족 부양형, 3) 경제자립형, 4) 위기생계형, 5) 국가간자영업형, 6) 다문화전문직형, 7) 경력활용형, 그리고 8) 취업유예형의 8가지 구직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여성결혼이민자, 구직자 유형, 취업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suhjang4@keis.or.kr)

** 경인여자대학 전임강사 (romeelee@kic.ac.kr)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jangina@yonsei.ac.kr)

I. 서론

1990년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 급증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한국에 영구 체류하면서 한국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준한국인’으로서 인식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국가적 의제로 대두되었다(원숙연, 2008).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 지원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8). 일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경을 넘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친숙한 생활환경으로부터의 분리,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제약,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김이선 외, 2008).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해 최근 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 경제적 통합, 즉 취업 지원이다. 그동안 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한국생활적응 및 문화이해,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의 문화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김이선 외, 2006).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 역사를 고려할 때, 이들 중 상당수는 초기 적응 단계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있으며(김이선 외, 2008),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들 가구는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실제로 결혼이민자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이 무려 53%를 차지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6).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기술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는 이들의 빈곤 또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의

취업욕구가 매우 높음에도 이들의 취업률은 낮은 현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김이선 외, 2008; 장명선 외, 2008; 정기선 외, 2007).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양육 병행, 서툰 한국말 등의 이유 외에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따라서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취업지원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김이선 외, 2008; 김영혜 외, 2009; 장명선, 2009; 정기선 외, 2007; 한국직업상담협회, 2008). 그런데 이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대체로 이들 전체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을 세분하여 분석한 경우라도 출신 국적별 차이를 분석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의 집합체로서, 이들을 동질집단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¹⁾.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가 효과적이라면, 이들의 국적, 학력, 경력 등의 인적자본은 물론 이들의 취업 목표, 취업 욕구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들의 상이한 특성에 근거하여 취업지원 서비스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구직자로서 갖는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구직자 유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특징에 적합한 정책과 서비스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1) 설동훈(2006)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적응도를 출신국과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내부적 차이를 알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1.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선행연구 동향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 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연구가 정책연구기관, 실무단체, 지자체, 학계 등 다양한 연구주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등장을 계기로 한국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를 요청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선행 연구의 구체적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정책 지원의 방향을 연구하는 정책 연구가 있다. 양적 조사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 경제수준, 가족상황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그것이다(김이선 외, 2007; 설동훈 외, 2005; 설동훈 외, 2006; 이선주 외, 2008). 이러한 정책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분석을 통해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 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정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방향을 연구하는 지자체 단위 연구를 수행해 왔다(박지혜, 2007; 장명선과 이옥경, 2008; 정기선 외, 2007; 조석주와 이상목, 2008; 조규호 외, 2008). 이들 연구는 서울, 경기, 충북, 전북, 부산 등 각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데이터를 추출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학계에서는 문화인류학, 사회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학, 철학, 교육학 분야로 확대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계에서 수행되는 선행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개념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이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을 논의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정책을 연결하는 연구들이다(김영옥, 2007; 윤인진, 2008).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이주’ 등의 개념을 정리하고,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하는 연구이다. 다음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경험과 갈등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김민정 외, 2006; 김현미 외, 2008; 이혜경 외, 2006; 윤형숙, 2005; 한건수, 2006). 이들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문화적 갈등과 일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출신국과 한국의 국가적 위계 안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겪는 갈등의 요인으로 문화, 언어, 경제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위치에 주목하고 있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통합 또는 취업지원 방안을 주제로 하여 수행된 연구는 최근 1-2년 사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²⁾.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양적 조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실태와 미취업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의사 및 미취업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연구에 따라 19%에서 34%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2) 대표적으로 김이선 외(2008), 결혼이민자 사회, 경제적 통합을 진전을 위한 브릿지(Bridge Program) 추진방안, 보건복지부; 김영혜 외(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장명선(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 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의 연구가 있다.

3) 본 논문에서 기술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현황은 김이선 외(2008), 결혼이민자 사회, 경제적 통합을 진전을 위한 브릿지(Bridge Program) 추진방안, 보건복지부; 김영혜 외(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장명선(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기선 외(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 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정리하였다.

직업도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로 판매서비스직 또는 음식점 종업원에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 외에 생산직, 전문관리직(또는 강사/교사직)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반수 이상(56~59%)이 일용직을 포함한 임시직 임금근로자로서 일하고 있고, 약 사분의 일(26~27%) 가량이 상용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주로 ‘모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 ‘가족 및 친척의 소개’ 등 주변의 사적인 경로를 통해 구직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을 통해 취업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주당 평균 47~56시간 일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상당수가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모든 연구에 있어서 동일하게 판매서비스직 및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무시간이 길지만, 강사/교사직은 근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강사/교사로 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98.3만원이며(정기선 외, 2007), 상당수(56%)가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생활비 보충’, ‘가족의 생계유지’, ‘자녀의 양육비 충당’ 등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외에도 ‘장래 노후 대비’, ‘자기 발전을 위해’, 또는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취업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은 ‘일하면서 자녀돌보기’, ‘가사일과 병행하기’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등 열악한 근무조건; ‘언어소통의 어려움’, ‘외국출신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외국인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직장생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미취업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욕구를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들 중 78%~82%가 향후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자녀 양육을 첫 번째 사유로 지적하였는데, 이 결과는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러서’,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를 주요 미취업 사유로 지적하였다. 이들이 취업하기 희망하는 직업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였다(김이선 외, 2008).

이 외에도, 김영혜 외(2009)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보통 또는 서툰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또한 대체적으로 자신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들 대다수(83%)는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없으며, 이에 비해 본국에서는 더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평균 교육연수는 12.4년으로 우리나라 고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여성결혼이민자 중 정규교육연수가 7~12년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도 24%나 되었다.

구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선행 연구들은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와 미취업 여성결혼이민자의 미취업 실태 등을 양적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를 하나의 특정 집단으로 보고 취업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들을 세분하여 분석한 경우라도 출신 국적별로 차이를 분석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본국 학력, 경력 등의 특성과 취업 욕구를 고려할 때, 이들은 다양한 인적자원의 소유자이며 하나의 동질적인 구직자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 및 다양성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 구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구직자로서 갖는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구직자 유형을 분석하고 특징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구직경험 또는 노동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구직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잘 말해 줄 수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4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초기에 참가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면접을 수행해 나갔으며,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지 않을 때까지 참가자 모집을 병행해 나간 결과 참가자 40명 선에서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다. 연구참가자 모집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연구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미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눈덩이 표집방법(Paly, 1997)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참가자 모집 시, 참가자 속성에 따른 비교적 고른 할당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적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하여,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일본 등 다양한 출신 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둘째, 고학력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각종 강사나 사무직에, 저학력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생산직이나 서비스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이들의 학력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의 여성성결혼이민자들은 물론, 도농 복합지역을 포함한 지방 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고루 연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자 접촉점을 선정하고 모집하였다. 연구참가자의 인적사항은 아래의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일대일 심층면접은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인터뷰 결과의 사용계획, 연구참가자의 익명성 보장 및 연구참가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가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반구조화된 면접을 수행하였다. 준비된 면접

질문 내용은 크게 네 종류로서 첫째, 연령 · 국적 · 현재 직업 · 한국어 수준 · 배우자의 학력 · 직업 · 월수입 ·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등의 인적사항 관련 질문, 둘째, 본국에서의 학력 및 취업경력 등 본국에서 쌓은 인적자원 관련 질문, 셋째, 한국에서의 취업경력 · 취업을 위해 참여한 교육과 훈련 · 구직경로 등 한국에서의 취업이력 관련 질문, 넷째, 취업을 원하는 이유 · 원하는 직업과 근무조건 등 구직요구 관련 질문이었다. 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면접 준비과정에서 통역을 준비하였으나 실제 면접 시 연구참가자 대부분이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국어를 구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역 없이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에는 일인당 평균 1시간 30분~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추후 녹취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수집된 자료는 자료들을 비교하여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인 항시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에 의거하여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먼저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는 과정을 통해 연구참가자들의 구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에 의거하여 면접 질문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녹취록 상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는 것을 최종 요인으로 확정하는 한편, 예상 요인 중 유의미한 정도가 적은 요인들은 삭제하였다. 또한 예상 요인이 아니었으나 녹취록에서 새롭게 드러난 요인들을 추가하였다. 선정된 요인 별로 연구참가자의 특징을 분석한 후, 전반적으로 유사성을 띠는 연구참가자끼리 묶어 구직자 유형의 예비적 틀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연구참가자들의 결혼 전 삶, 결혼과정,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순차적인 ‘이야기 구조’로 진술된 연구참가자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연구참가자의 취업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구직자 유형을 수정 · 세분화 및 정교화 하였다.

이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참가자 전원에게 분석 결과를 송부하여, 그 분석 결과가 연구참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참여자 확인(member check) 과정을 거쳤다(Lincoln &

Guba, 1985). 둘째, 여성결혼이민자 연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 3인에게 분석 결과를 보내 자문을 구하는 동료 연구자 감사(peer review)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을 수정하고 보강하였다(Lincoln & Guba, 1985). 또한 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함께 심층면접을 수행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를 거듭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도출된 분석 결과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자 삼각측정(investigator triangulation) 과정을 거쳤다(Denzin, 1970).

〈표 1〉 연구참가자 인적사항

연구 참가자	나이	국적	거주지	한국 체류기간	학력	본국에서의 경력	한국에서의 경력
1	29	필리핀	경기	4년	대졸	초등학교 교사	공부방 영어강사,
2	41	몽골	경기	12년	대졸	대학 졸업 후 일자리 없어 쉼	공장, 통·번역 및 노동 취업 상담,
3	26	카자흐스탄	경기	6년	고졸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방송국 사무, 통번역
4	33	베트남	경기	4.5년	대졸	기업 회계팀 근무	통번역, 상담, 복지관 영어강사
5	29	베트남	경기	8년	초대졸	외국인대상 베트남어 강사	통번역, 이주여성상담
6	42	필리핀	경기	10년	대졸	사진관 촬영기사	공장, 유치원 영어강사
7	45	베트남	서울	14년	초대졸	패션 개인사업 패션 디자이너	통번역, 남편 사업 도움 이주노동자상담
8	39	중국	경기	10년	대졸	화학 공장 근무, 중국진출한국기 업 사무직 근무	통번역, 식당
9	40	태국	경기	10년	대졸	대만의 공장 근무	공장, 농업, 이주여성상담, 통역,
10	38	태국	경기	8년	고졸	백화점 캐셔, 가게 점원, 공장노동자 등	관광통역가이드, 공장, 마사지 샵

연구 참가자	나이	국적	거주지	한국 체류기간	학력	본국에서의 경력	한국에서의 경력
11	36	필리핀	경기	6년	초대졸	공장 노동자	공장 노동자
12	37	필리핀	경기	10년	고졸	백화점 점원	조명회사 노동자
13	41	키르기스스탄	경기	5년	대졸	음악교사	자동차부품회사 생산직 노동자
14	37	캄보디아	경기	3년	고졸	가게 아르바이트	공장 노동자
15	53	태국	경기	9년	대졸	세일즈 매니저	자영업, 공장 노동자
16	28	몽골	경기	3년	대졸	무역회사 관리직	국제결혼업체 취업상담 및 알선
17	33	중국(한족)	경기	3년	초대졸	한국의류회사 관리직	중국어 강사, 식당
18	29	중국 (조선족)	경기	5년	대학 중퇴	상해 주재 한국회사 사무직	다문화가족실태조 사원
19	34	중국 (조선족)	경기	9년	고졸	어머니 반찬사업 도움, 한국 식당 직원	공장 노동자, 식당, 간병인, 다문화가족실태 조사원
20	34	몽골	충북	3년	대졸	통일교회 봉사	세탁소 및 식당 아르바이트, 공장
21	30	몽골	충북	4년	대학 중퇴	호텔청소부	식당, 세차장, 모텔 청소
22	44	중국 (조선족)	충북	13년	고졸	요리사	식당, 농업, 공장
23	35	중국(한족)	충북	4년	고졸	초등학교 보조교사	농업
24	35	중국 (조선족)	충북	8년	대학 중퇴	일본 및 한국기업에서 사무직 및 통역	중국어 강사
25	42	필리핀	전북	7년	대졸	항아리 제조업 (가족 사업) 회사 사무직, 신문기자, 라디오 아나운서	방과 후 영어강사, 공장, 농업, 통역, 가이드, 영어방문교사
26	30	필리핀	전북	2년	초대졸	싱가폴 베이비시터	방과후 영어강사

연구 참가자	나이	국적	거주지	한국 체류기간	학력	본국에서의 경력	한국에서의 경력
27	28	베트남	전북	5년	고졸	미용실 및 카페 아르바이트	통역, 공장, 부업
28	49	필리핀	전북	8년	초대졸	홍콩 가사도우미	방과후 영어강사, 농업
29	29	필리핀	전북	7년	대학중 퇴	가사도우미, 마트 캐셔	방과후 영어강사
30	41	중국 (조선족)	경기	3년	고졸	한국계 회사 통역, 사무직, 백화점	공장, 식당, 전단지 배포, 분식집 아르바이트,
31	34	중국 (조선족)	경기	6년	고졸	한국 중소기업 핸드폰 제조공장 주임, 백화점근무	공장, 편의점 캐셔 식당 및 옷가게 점원,
32	40	중국 (조선족)	경기	7년	초대졸	화학회사 실험실 요원, 의류제조회사 검수요원, 옷가게판매	공장, 정육점 아르바이트
33	30	중국(한족)	경기	5년	고졸	부동산 중개, 식당	중국어 강사, 공장, 전단지배포, 식당
34	33	키르기스스탄	서울	7년	대졸	간호사, 의사	통역, 공장, 피부마사지 샵
35	43	일본	서울	5년	대졸	건축설계회사, 아르바이트	영업 및 판매업
36	45	일본	서울	7년	초대졸	병원 사무, 판매 아르바이트	부업, 판매업
37	49	일본	서울	4년	초대졸	간호사	모텔, 백화점 청소, 통역
38	35	홍콩	서울	6년	초대졸	회사 영업부	무역 회사 사무직
39	30	러시아	서울	10년	대졸	한국회사 통역 및 비서	관광통역가이드, 번역
40	37	우즈베키스탄	경기	6년	대졸	여행사 (가족 사업)	통번역, 상담

2. 여성결혼이민자 구직자 유형 분류 기준

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수의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력·본국에서의 경제적 수준과 같은 개인 배경, 둘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결혼유형과 같은 결혼 배경, 셋째, 언어자원·본국에서의 경력과 같은 인적자원, 넷째, 취업의지·추구하는 일·구직 이유와 같은 취업 욕구가 그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여성결혼이민자 구직자 유형은 이러한 요인들을 비슷하게 공유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을 의미한다. 여성결혼이민자 구직자 유형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개인배경

(1) 학력

이 연구참가자의 학력은 이들의 구직자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한국 학력과 비교가 어려운 관계로 취업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저학력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비해 상당수 전문직 또는 사무직 경력을 갖고 있으며, 희망하는 일이 분명하고, 구직 과정에서 상세한 경력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육훈련 준비를 하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을 ‘초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2) 본국에서의 경제적 수준

이 연구참가자의 본국에서의 경제적 수준은 이들의 구직자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본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연애혼이 많고, 자신의 가정을 중심에 놓고 근로 조건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바로 취업하기 보다는 교육훈련을 통해 준비기간을 가진 후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본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연구참가자들은 소개나 중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결혼이주를 매력적으로 생각

하였고, 이주 후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택하며, 본국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 시 드러난 연구참가자의 본국에서의 경제적 수준을 ‘경제적 어려움 없음’과 ‘경제적 어려움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2) 결혼 배경

(1) 가정 경제 수준

이 연구참가자의 가정 경제 수준은 이들의 구직 이유 및 추구하는 직업에 차이를 가져왔다. 즉, 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경우 구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계를 위한 필수 요구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가정 형편이 나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성향 때문에 취업하고자 하고, 현재의 일보다 나은 조건의 일에 진입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취업조건을 면밀히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여성결혼이민자 구직자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인 가족 기준 월 113만 6천원이라는 최저생활비 기준을 토대로, 대략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정을 ‘중산층’, 100~200만 원대의 소득이 있는 가정을 ‘서민층’,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정을 ‘빈곤층’으로 구분하였다.

(2) 결혼유형

연구참가자의 결혼유형은 이들의 구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유형을 ‘연애혼’, ‘중매혼’, ‘종교혼’으로 구분하였는데, ‘연애혼’은 일정기간의 연애 후 결혼하게 된 혼인과, 지인의 소개로 인한 ‘중매 반 연애 반’의 경우를 포함하였다. ‘중매혼’은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단지 통일교라는 중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혼인과 일반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혼인이 포함된다. ‘종교혼’은 글자 그대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행한 이주결혼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참가자들의 결혼유형은 이들의 구직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왔다. 연애혼인 경우 가정의 결속력이 중매혼 및 종교혼으로 입국한 이들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 경제수준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구직 사유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매혼으로 입국한 연구참가자들의 경우 구직 사유로서 경제적 동기가 두드러지며, 종교혼을 한 연구참가자들은 종교적 신념의 실현을 우선시하여 이런 신념을 구현하는 방편으로 취업을 생각하거나 이에 걸맞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생각에 구직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인적 자원

(1) 언어자원

이 연구참가자들이 보유한 언어자원은 이들의 취업 기회 및 취업 직종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이들의 한국어 유창성 및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한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언어의 구사 여부에 따라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의 기회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 태국어만 할 줄 아는 태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고학력이라 하더라도 한국 노동시장에서 매력적인 구직자가 아닌데 비해, 모국어와 함께 한국어가 유창한 여성은 통번역 등 이중 언어를 필요로 하는 직업에, 그리고 영어를 구사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어학 강사 등의 직업에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자원을 ‘이중 언어(한국어와 본국어) 유창,’ ‘중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구사,’ 그리고 ‘언어자원 없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2) 본국에서의 경력

이 연구참가자가 본국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취업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들이 과거에 전문직 또는 사무직 분야에 종사했다고 해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유사한 분야로 취업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의 일 경험은 이들이 한국 사회 적응 후,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을 비교적 장기간 수행한 경험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자신이 취업희망 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육체노동을 주로 해온 여성들은 보다 나은 직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력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본국에서의 경력을 ‘전문사무직’, ‘단순노무직’, ‘경력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4) 취업 욕구

(1) 취업의지

이 연구참가자의 취업의지는 이들의 구직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왔다. 즉, 꼭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취업을 삶의 선택 중 하나로 여기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 욕구와 구직활동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의 취업의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취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취업의지 ‘강함’과 ‘약함’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2) 희망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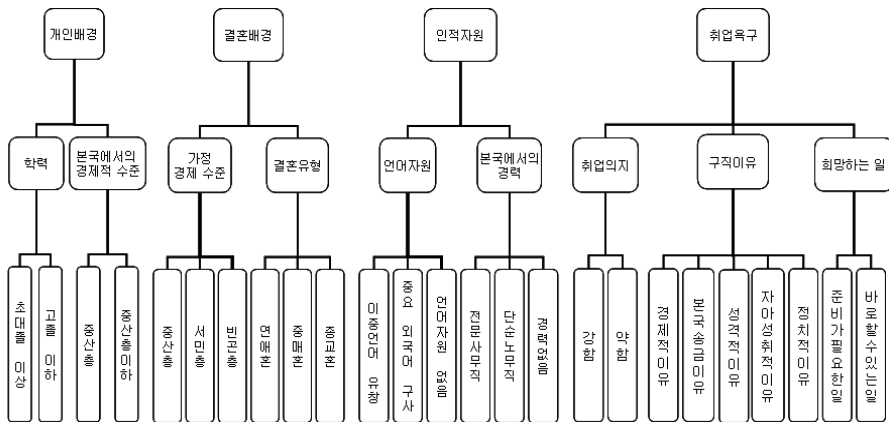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 가능한 노동시장은 생산직, 서비스직, 언어·문화 자본을 활용한 강사직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범주 안에서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구직자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현재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 외에도, 이들이 장래에 하고자 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이 희망하는 일이 여성결혼이민자 구직자 유형 분류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희망하는 일을 ‘준비가 필요한 일’과 ‘바로 할 수 있는 일’로 구분하였다.

(3) 구직이유

연구참가자의 구직 이유는 이들의 구직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 이유를 ‘경제적 이유’, ‘본국송금 이유’, ‘성격적 이유’, ‘자아성취적 이유’, ‘정치적 이유’로 구분하였다. ‘경제적인 이유’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구성한 자신의 가족 경제를 돕기 위해 일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본국송금 이유’는 본국의 가족을 돕고자 취업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적 이유’는 일을 통해

타인들을 만나며 집 밖에서 활동하고 싶어하거나,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밖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취업을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성취적 이유’는 자기 발전을 꾀하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자 취업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유’는 같은 이민자를 지원하는 일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취업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구직자 유형 분류 기준은 <표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여성결혼이민자 구직자 유형 분류 기준



선정된 구직자 유형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유형화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자 유형 분류기준 중 학력·가정 경제 수준 등, 개인이 처한 구조적·맥락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40명 연구참가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구조적·맥락적 기준으로 볼 때, 각 연구참가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표를 만들어 표시한 후, 각 기준 별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참여자들을 같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취업의지·희망하는 일·구직이유 등 행위자의 경험 및 의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담긴 진술과 같은 개인적 조건을 중심으로, 같은 유형 내에서 존재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간의 상이성을 분석하였다. 즉, 겉으로 보기에 유사하게 보이는 ‘구직’ 과정을

개인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의도로 그 과정을 수행했는가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상이성에 의거하여 구직자 유형을 수정·세분화·정교화 하였다. 그 결과로 8개의 구직자 유형이 도출되었다.

IV. 연구결과

앞에 제시한 유형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덟 개의 여성결혼이민자 구직자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중 첫번째의 네 가지 유형 - 일추구형, 본국가족부양형, 경제자립형, 위기생계형 - 은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열려 있거나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취업이 가능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며, 동일 시장 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다양한 유형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온 노동시장을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정의하고, 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연구참가자들을 ‘주변부노동시장활동형’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다음의 세 유형 - 국가간자영업형, 다문화전문직형, 경력활용형 - 은 고학력이고 전문적 일 경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들이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일자리를 탐색하고 개척해 가는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허용된 시장을 넘어서는 일자리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노동시장개척형’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의지가 약하거나 종교로 인한 특수한 신념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취업유예형’으로 명명하였다. 도출된 여성결혼이민자 구직자 유형은 <표 3>, <표 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4〉 여성결혼이민자 구직자 유형

중범위	구직자 유형
주변부노동시장활동형	일추구형
	본국가족부양형
	경제자립형
	위기생계형
노동시장개척형	국가간자영업형
	다문화전문직형
	경력활용형
취업유예형	취업유예형

1. 주변부노동시장활동형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열려 있는 노동시장 분야는 생산직과 식당 일 등 하위 노동 영역과 본국의 언어와 문화를 한국인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직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의 주변부 및 제한된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역량, 성향, 그리고 가정이 처한 형편 등에 따라 다양한 구직자 유형을 보이며, 이러한 유형은 일추구형, 본국가족부양형, 경제자립형, 위기생계형으로 구분된다.

1) 일추구형

한국 가족과 비교해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즉, 이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큰 어려움이 없어도 경제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일추구형은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사람들로서, 경제적인 필요 충족 외에도 성향적으로 일하고 싶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취업을 희망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학력이나 계층에 있어서

배우자와 큰 차이가 없고, 상당수가 애정에 기초하여 결혼하였다. 이들은 낯선 땅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지만, 가정을 꾸려나가는 동시에 자신의 일을 가지기를 희망하였다.

바빠 지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진짜 답답하고 그랬는데, 몇 시간 일 다니고 컴퓨터 다니고, 다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아기도 10시까지 어린 이집에 있잖아요. 그때까지 놀려면 머리가 아파요(...) 저는 돈이 있어도 집에 가만히 있으려면 못 있을 것 같아요. 뭐를 배우러 다니든지 해야 되요. (사례 19)

그러나 이들의 구직 이유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이주결혼이라는 배경이 이들의 취업 욕구에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집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이들한테 보여 주고 싶은 것도 커요. (모임에 나갔더니 다른 이주 여성이 하는 말이) 딸아이가 그러더라나 ‘엄마가 싫다. 엄마는 외국에서 와 가지고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엄마가 충격을 많이 먹어서 며칠 동안 입맛도 없고 해서 말도 안하고 실어증 비슷하게 그랬대요 (...)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진짜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더 배우고 더 열심히 살고 그런 모습을 안보여 주면 아이들한테도... (한국)사회 자체가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엄마도 열심히 사는구나’ 엄마에 대한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 정도는 없지 않을까... (사례 24)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외국인으로서 자칫하면 주눅들 수 있는 환경에서 당당하게 살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아이들이 소위 ‘다문화 가정의 아이’ 라는 이유로 겪을 수 있을 놀림 등에 크게 신경 쓰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외국에서 온 여성이지만 한국사회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한편, 자녀와 자녀 주변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본국의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욕구가 취업을 희망하게 만들었다.

이 유형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무역기업 회사원, 통·번역직, 국제결혼업체 직원, 각종 강사직 등 이중언어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허용된 주변부 노동시장에 속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시간제,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보다 직업 안정성이 보장된 일을 찾으려 한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문교육들을 발 빠르게 찾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더 좋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

2) 본국가족부양형

본국가족부양형은 본국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하려고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해당 된다. 이들은 ‘괜찮은 일’의 기회가 적은 본국보다 외국에서 삶의 기회를 갖기를 추구하여 이주의 한 방법으로서 결혼을 선택하고, 따라서 대부분 중매혼으로 입국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주로 본국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필리핀 여성인 사례 1과 6은 어려운 삶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주결혼을 선택하였고, 한국사회에서 인정되는 취업자원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구하였으며, 소득의 대부분을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례 1은 일을 하는 이유를 본국의 오빠를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저는 풀타임 일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남편도 월급이 얼마 안 되고 필리핀 부모님도 못 도와주잖아요. [게다가] 호주에 있던 오빠가 나 때문에,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 필리핀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빠가 그 회사에) 갔는데 (회사가) 망했잖아요. 오빠네 아기들이 원래 프라이빗 스쿨 다녔는데... 제가 일하면 (아이들을 프라이빗 스쿨에) 보내줄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일하면 내 월급은 필리핀으로 보낼 거야.” (사례 1)

사례 6도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을 필리핀 친정으로 보내고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송금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다. 이처럼 본국가족부양형으로 분류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체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모색하며,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는 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3) 경제자립형

경제자립형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돈을 벌고자 일하려는 여성결혼이민자로서, 공장 생산직, 식당 서빙, 본국인 여행객 가이드 등 일의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일을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한국에 온 후 남편이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절감하게 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하면서 자녀양육도 함께 해 내는 ‘뚝순이형’, ‘억척형’ 여성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이주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중개혼일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연애를 거치는 등 혼인에 있어 애정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일단 결혼으로 가정을 구성한 뒤에는 전형적인 한국의 중하층 기혼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이들은 처음에는 가정을 꾸리고 살림만 하였으나, 남편의 빚 등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동시장에 입성하였다.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이 유형으로 분류된 여성들은 농사일만으로는 가정이 안고 있는 빚이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모자라서, 농촌 주변의 공장에서 일자리가 나는 대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사례 32는 꼭 일해야 하는 이유가 시댁 때문에 늘어난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 시동생 차 사고 나서 (우리 남편이) 6천만원 대출 받았어요. 둘째 시동생이 남편에게 그러데요, 중국에 있는 형수네에 (이야기해서) 돈 좀 얻어 달라고. 내가 돈 있으면 왜 한국에 왔겠어요? 내가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쓰러져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남편이 돈을 냈어요. 다 대출 받은 거...내가 벌고 저금해서 3년 동안 500만원 갚았어요.(사례 32)

이 유형으로 분류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주변부로 진출하여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주로 ‘체력’을 요하는 일에 상당 시간 종사하게 되나, 차츰 한국의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상당한 일 경험을 축적한 후에는 더 좋은 조건의 직업으로 이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례 33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한국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장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다른 일을 하는) 언니들은 한국말도 영어도 태국어도 잘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공장 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려면 다 한국말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한국어를 공부 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돈을 버나 (이 생각만 했어요.) 처음부터 신랑의 문제 때문에 나는 “공부 안 해. 돈 벌어야 해” (라고 생각했지요). 돈 없으면 못살잖아요. (사례 33)

경제자립형으로 분류된 여성들은 현재의 직업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과 훈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교육과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 의지도 높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실제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직업적인 성장을 꿈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위기생계형

위기생계형은 한국에서 겪게 된 빈곤으로 인하여 공장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해당된다. 이들 대부분은 대체로 학력이 낮고 전문적인 일 경력도 없으며, 한국어 유창성 등 취업에 필요한 자원도 거의 갖지 못한 상태이다. 이들은 본국에서도 가난한 삶을 살았고, 한국에 와서도 빈곤한데다가, 한국어와 문화 자본 등 인적자원도 거의 없어 최하위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 유형으로 분류된 여성결혼이민자 중 사례 11과 14는 별거, 사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캄보디아 여성인 사례 14는 남편이 집을 나가 아이를 혼자 길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캄보디아 친정에 보내고 공장을 전전하면서 자신과 아이의 생활비를 벌고 있다.

저는 돈 벌어야 해요. 저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저는 한국말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돈이 없어요. 일했는데 저기(공장)에서 월급이 안 나와요. 지금은 저는 여기 공장 좋아요. 다 좋아요. 월급은 조금 괜찮아요. 나쁜 말이 없으면 좋아요. 공장에서 주임이 때리고 부장이 씨팔 씨팔하고 (...) 여기는 좋아요. 오버타임 많아도 괜찮아요. 열심히 해요. 좋아요. 남편(이) 돈 안줘요. 어떻게 (해요). 남편은 돈 없어요. 남편이 (내가) 나이 많다고 싫어하고 집을 나갔어요. 지금 혼자 살아요. 공장에서 돈 벌어서 혼자 살아요. 많이 힘들어요. (사례 14)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이 일하는 환경은 임금체불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욕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들은 경제적 빈곤 정도가 심각하여, 더 나은 조건의 직장 또는 직업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정신적 여력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2. 노동시장개척형

학력과 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진 제한된 노동시장을 넘어서서,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즉, 이주로 인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쌓아온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과 모국간의 무역 등 자영업업을 시도하는 국가간자영업형, 같은 처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다문화전문직형, 자신의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해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경력활용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국가간자영업형

국가간자영업형은 직업활동으로 ‘구직’이 아닌, 본국과 한국 간의 ‘창업’을 추구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유형이다. 이들은 학력이 높고, 비교적 전문적인 일 경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주도적으로 경제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돈이 될 만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취업의지가 강하고, 일정 정도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쌓아 각종 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 유형에 속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 이후 가정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깨닫게 되어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일단 공장, 식당과 같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진입 가능한 주변적인 일부터 시작하여 한국 사회에 대해 차츰 적응해 갔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가진 학력과 경력은 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남들보다 빨리 경제활동의 돌파구를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이들의 일자리 수준도 조금씩 올라가게 되었으며, 현재는 주된 직업 활동을 하면서 부업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 사례 9의 경우 통역 일을 하면서 동시에 태국 물건을 들여다 동네 시장에서 파는 부업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태국에도 가게를 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고물건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태국에서 중고물건 가게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한국에는 좋은 물건이 있어요. 고물상에 좋은 물건이 있다고요. 지금 하면서 많이 알아놓으면 나중에 태국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갈 수 있죠. 딸은 태국에 한국 국제학교가 있으니 거기에 보내면 한국어와 영어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중학교쯤 되면 보내고 싶네요. (그러면 제가)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사례 9)

과거에 태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파는 일을 시도했다가 통관 절차를

잘 몰라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례 15도 현재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일해서 번 돈을 태국에 보내 본국의 가족들이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추후 한국의 가족이 전부 태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미래에 가족 모두 모국으로 역이주할 것을 계획하며 자녀에게 양쪽 언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이들의 배우자는 이러한 아내의 계획에 심적으로 동조하며, 아내의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양국 간 사업인 ‘부업’이 ‘본업’이 되기를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이들은 양쪽 국가의 언어와 문화, 법률에 정통하고자 하며, 따라서 한국의 문화와 법, 제도 등에 관심이 많다.

2) 다문화전문직형

다문화전문직형은 같은 처지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돕는 일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유형이다. 국가간자영업형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학력이 높고, 비교적 전문적인 일 경력이 있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민감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이라는 일견 차별적인 사회적 위치를 부여받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도우면서 여성결혼이민자 전체의 입지를 세워가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은 다문화센터의 통·번역직, 정착상담직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서비스 영역에 입문하여 관련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사례 2는 여러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다가 현재 스스로 이주자 상담소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 5와 7은 통·번역 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오면서, 본국의 문화를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에게 알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본국인들의 단절을 도모하는 단체의 장을 맡고 있다. 사례 17 역시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원으로 일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주여성 정착상담원으로 지원하여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

두 달 동안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집에 가니까 한 달 수입이 얼마 되느냐고 물었는데 50만원도 안되요. 큰아이는 유치원 보내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둘째는 우유 살 돈도 없어요. 아기는 굶고요. 남편은 쿨쿨 자요. 그런데 제가 가던 날도 한 시간 조사를 하는 중간에 아기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남편은 계속 잤어요. 진짜 화나고 그랬어요. (...) 또 다른 집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세 식구가 살고 월세집이고 급식비는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눈물이 나요. 진짜 이런 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교육받고 있잖아요. 제가 결혼이민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 17)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주자 정착지원 서비스 분야를 하나의 ‘거처 가는’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비해, 이 유형으로 분류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며, 이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계속 교육받고자 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기에는 급여수준이 낮고 일시적인 정부 보조금 등으로 불안정한 급여를 받는 등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며, 이 분야 종사자를 위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 또한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속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

3) 경력활용형

경력활용형은 전문적인 일 경력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경력과 적성이 반영되는 일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다양한 개인배경, 결혼배경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만, 장기간의 전문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같은 방면으로 취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교육과 훈련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 유형으로 분류된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현재 여성결혼이민자가 진입 가능한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관련 분야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례 8은 중국 내 한국 기업에서 통·번역을 했던 경력을 살려 통·번역 전문직을 갖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으며, 사례 22는 10년 요리사 경력을 살려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나, 현재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기관에서 주말마다 중국요리를 만드는 봉사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의사였던 사례 34는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였지만, 의료관광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사례 34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무역회사에서 통번역 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소개소에)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소개해 주는 곳은 공장, 식당, 청소였어요. 공장 다니면서 너무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내 지식을 다 잊고 한국어도 늘지 않아요. 처음에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거 알려주려고. 내가 일반 사람 아니고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구요). 한국에서는 공부한 사람은 다르게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다닐 시간에 공부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만 두고 여러 가지 교육 받은 것이 있고요. 그러다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교육 받았어요. 러시아에서는 한국 와서 치료받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비싸도 여기 사람 많이 와요. 내가 중간에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면서 병원 소개해 주는 교육 받았어요.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일하면 제일 좋을 거 같아요.(사례 34)

이 유형에 속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과거 경력을 살려서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적인 학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일자리가 아닌 새로운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훈련 정보가 부족하고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보를 얻었다고 해도 높은 교육비용으로 인해 교육 참가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3. 취업유예형

취업유예형은 취업의지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여 노동시장에 쉽게 입성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에 입성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하지 않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입성하지 않거나, 실제로 취업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사례 23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즉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에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교육기관에서 제공한 취업준비교육을 함께 수료한 사람들은 이미 상당수가 취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직 취업할 만한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 39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교육을 상당수 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투자 대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이 나타나지 않아 취업을 유예하고 있다. 한편, 사례 35, 36, 37은 모두 통일교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결혼한 여성들로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일을 찾고 있지만 아직 적합한 일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취업유예형은 여러 가지 일을 해 보았으나 취업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정립하지 못한 여러 유형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내게 맞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 높은 노동강도에 맞게 많은 월급을 주는 일, 종교적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구직자로서 갖는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이들의 구직자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40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는 개인배경, 결혼배경, 인적자원, 구직욕구라는 요인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1) 일추구형, 2) 본국가족부양형, 3) 경제자립형, 4) 위기생계형, 5) 국가간자영업형, 6) 다문화전문직형, 7) 경력활용형, 8) 취업유예형이라는 8가지 구직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은 주변부노동시장활동형, 노동시장개척형, 취업유예형의 세 가지 중범위 범주로 정리되었다.

일추구형은 다른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경제적인 필요 외에도 성향적으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취업하려고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배우자와 학력 및 계층 차이가 적은 편이고 애정에 기초하여 결혼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이중언어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허용된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직업안정성이 보장된 직업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본국가족부양형은 본국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취업하려고 하는 유형으로서, ‘괜찮은 일’이 적은 본국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대체로 중매혼을 통해 결혼하였다. 이들은 당장 돈을 벌기를 희망하여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는 교육이나 훈련에의 참여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경제자립형은 남편이 안고 있는 경제적 빈곤을 절감하고,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취업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주로 공장 생산직, 식당 서빙, 본국인 여행객 가이드 등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일 경험이 축적되면 더 좋은 조건의 직업으로 이동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의 직업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 및 훈련에 높은 가치를 두고, 이에 참여하고자 한다.

위기생계형은 극심한 빈곤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다, 학력이 낮고 전문적인 일의 경력도 적은 편이며, 한국어 실력도 떨어지는 등 취업자원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적, 정신적 여력조차 없으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추구형, 본국가족부양형, 경제자립형, 위기생계형은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허용된 제한적인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따라서 이들을 ‘주변부노동시장활동형’이라는 중범위로 범주화할 수 있다.

한편 이주로 인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 전형 종사 직업을 뛰어 넘어 새로운 노동시장 입성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가진 ‘노동시장개척형’에는 국가간자영업형, 다문화전문직형, 경력활용형이 포함된다.

국가간자영업형은 궁극적으로 본국과 한국간의 창업을 추구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취업 활동 외에 부업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본국과 한국 간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고학력 또는 전문직 경력이라는 취업자본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경제활동의 돌파구를 찾을 힘을 얻었으며, 따라서 가정 경제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추진한다. 이들은 미래에 가족 모두 모국으로 역이주할 것을 계획하기도 하며, 이를 위해 자녀들에게 양쪽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들의 남편 또한 아내의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여, 이러한 계획에 심적으로 동조한다.

다문화전문직형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차별적인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도움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지를 세워가려는 목적으로 취업하려는 유형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고학력자이고, 전문적 일 경험을 소유하였으며,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다문화통번역직, 정착상담직 등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서비스 영역에 입문하여 경력을 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들이 대체로 급여가 낮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이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 계속 교육에 참여하고자 한다.

경력활용형은 과거의 전문적인 일 경력을 살리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본국에서 전문 직업에 종사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야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관련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분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일자리가 아닌 새로운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취업분야 정보 및 관련 교육·훈련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유예형은 다양한 이유로 취업을 유예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취업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도 다른 유형의 여성들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이들은 취업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보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일을 아직 찾지 못하였다고 여기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면서도 실제로 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점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남자와 혼인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뿐, 구직자로서 볼 때, 취업사유, 취업희망직업, 구비한 인적자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관심 정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여성결혼이민자’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동일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며, 오히려 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다 전문적이고 직업 안정성이 보장된 사무직을 찾는 일추구형이나 더 좋은 조건의 직업으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경제자립형에 해당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이들이 희망하는 직업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저학력 빈곤층이 대부분인 위기생계형의 경우 이들을 취업지원 대상 이전에, 복지 대상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고학력, 전문직 종사 경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 즉 여성결혼이민자 전형 종사 직업을 뛰어 넘어 새로운 노동시장 입성을 추구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듯이,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 하던 경력을 가진 여성들도 상당수 존재 한다. 이들은 한국사회로 이주 후, 자신의 과거 학력과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생산직 또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며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 경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경력이주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행학습평가인정제도(Prior Learning Assessment & Recognition)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종 학습의 결과를 진학, 취업, 승진에 필요한 점수 또는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경력이주자의 경우 이들의 본국 자격과 학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들이 보유한 직업능력과 유입국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이를 보완하여 유입국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제도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처한 어려움과 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유형이 있었다. 이러한 직종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도전 가능한 혼치 않은 전문직종이며, 다른 어느 누구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잘 할 수 있는 직종임이 외국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민무숙 외, 2009). 따라서 ‘선배’ 여성결혼이민자가 ‘후배’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직업이 임금이 낮고 임시직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직업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다문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각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구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이해함에 있어, 이들을 동질

집단으로 이해하였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들의 차이 및 다양성을 규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한 구직자 유형을 이해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취업지원 정책 및 지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이들의 ‘개인적 요인’ 외에도 이들을 둘러싼 가족,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될 때 더욱 현실적, 효과적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연구참가자 중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자 및 경력자가 상대적으로 구직욕구가 높고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연구참가자의 고학력 편중 현상은 이 연구가 구직경험과 노동경험이 충분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온 저학력자’로 치우쳐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고학력자에 대한 강조 및 상세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온 고학력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확립하는데 공헌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연구에서 고학력 연구참가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맥락 하에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129-159.
- 김영혜, 손기영 (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장혜경, 김혜영, 양명희, 최은영 (2007).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이선, 양인숙, 황정임, 고혜원 (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 추진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김현미, 김민정, 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이주?: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24(1).
- 민무숙, 김이선, 이춘아, 이소영 (2009).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지혜 (2007).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경기도가족·여성, 창간호, pp. 67-79,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설동훈, 김윤태,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선, 한영선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설동훈 (2006).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20.

- 설동훈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설동훈, 윤동식(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 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연구, 제 24권 제 5호, 109-133.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제 9권 제 2호, 29-49.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 윤희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선주, 양애경, 장미혜, 최현미, 송성실, 송유나 (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장명선, 이옥경 (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 장명선 (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이은아, 박지혜 (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조규호, 고은영, 남옥순, 장병조(2008). 충북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 수요실태조사 및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 조석주, 이상묵(2008).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국직업상담협회(2008). 결혼이민자여성 취업직종 및 교재 개발 중간 보고서. 대한YWCA 연합회.
- Denzin, N.K. (1970).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Chicago: Aldine.
- Lincoln, Y.S. & Guba, E.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nen, V. (1990). 신경림, 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연구 방법론*. 서울: 동녘.
- Palys, T. (1997). *Research decision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spectives*. Toronto: Harcourt Brace & Company.

Research on Employment Typology of Woman Immigrant Spouses in Korea

Suh Young Jang* · Romee Lee** · In Ja Jang***

This empirical research aims to elicit employment typology of woman immigrant spouses in Korea. It intends to provide the understanding of the diversities of woman immigrant spouses as job-seek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Forty woman immigrant spouses who have various work experiences were recruited and interviewed regarding their personal backgrounds, types of marriage, types of human resources, and the motives for seeking employment. Data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to draw the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employment, which primarily serve as criteria categorizing the participants. Constant comparative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ir employment-related histories, which enabled to reorganize, elaborate and finalize the typology that differentiate one from another.

The results demonstrate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on categorizing woman immigrant spouses. The factors are: level of education, financial difficulties experienced in the homeland, economic situation of family, types of marriage, language proficiency, previous work experiences, level of will for employment, types of job they seek for and motives for employment. As a result,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eight different types of job-seekers - the types of: 1) work-orientation 2) homeland family support 3) economic independence 4) urgent economic hardship 5) transnational entrepreneurship 6) multicultural service 7) utilization of previous careers and 8) postponed employment. By shedding light on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featured in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Kyungin Women's College

*** Yonsei University

this elicited typology, this research results imply that woman immigrant spouses cannot be categorized into one single group of job-seekers but multiple groups with diverse competencies, conditions and willpower for employment. Accordingly, different approaches for their employment support are needed. In this regard, several suggestions for policymakers in supporting employment of woman immigrant spouses were presented.

Key words: Woman Immigrant Spouse, Employment typology, Employment

